광주 서구, 온누리상품권 알리기 캠페인

광주 서구는 4일 서구 풍암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골목형상점가별 상인회, 자생단체회원들과 함께 서구 골목경제 100 프로젝트 '온누리상품권 알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한재영 전남대병원 교수 '식약처장 표창'

한재영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에 기여하고 재활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한 교수는 전남대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판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건 이상의 이상사례를 판별하고 심의해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공동조사 등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에 기여했다.

또 다양한 국책과제 책임연구자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활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 교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국내의 재활의료기기 개발이 의료기술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와 맞추어 실제 임상 중심의 수요기반 개발이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서유현 전남대 박사과정생 '우수논문상'

전남대학교는 서유현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생이 최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2편의 논문이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유현 학생은 '지역사회 자원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 회복탄력성의 발현'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의료진 수, 병원 수 등 지역별 의료자원과 문화시설, 지역 안전 등급 등 지역별 사회적자원이 소비자의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층 분석의 구조를 머신러닝에 적용,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 더해 지역적·구조적 요인의 작용을 통해 건강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서유현 박사과정생은 "지역의 사회적 자원이 소비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했고, 앞으로도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강대 RNTC, 고구려 유적지 탐방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 중국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높이고 미래 직업 군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했다.

4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학군단은 지난달 21~24일 중국에서 RNTC 10기 후보생을 대상으로 고구려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매년 전·하반기 실시하는 전적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동강대 학군단 10기 후보생들은 중국 지린(길림)성 일대의 광개토대왕릉과 장수왕릉 등을 돌아보고, 1360여년 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던 고구려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민족 영산의 웅장함을 몸소 느꼈다.

전적지 답사에 참여한 최아영 후보생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적지를 방문하니 역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다"며 "역사를 잘 기억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미래 군을 이끄는 우수한 부사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제305학군단은 국방부 정책사업인 육군 RNTC를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 2022년 7월 창설됐다. 최환준 기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기회도시 광주 만들 것"

'취임 1주년'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전용 차량 등 321대 운영
예산 확보·시스템 개선 노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확보·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의 포부다.

지난 2008년 개소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용차량 128대 바우처 택시 193대 등 321대를 운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취임 이후 황 원장은 노사 화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노동자들과의 소통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임금·단체 협상 등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 직원들은 친절한 고객 응대와 대기시간 감축 등에 적극 나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황 원장은 향후 센터의 중요한 과제로 교통 약자 이동 저변 확대를 꼽았다.

황 원장은 "교통약자의 정의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저변 확대를 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용인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다인승 차량을 활용한 단체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센터는 최근 최대 5명의 휠체어(전동·수동) 이용자와 보호자 6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휠체어 전용 버스를 도입했다.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 도입은 기존 개별 이동 지원 차량보다 수송력을 대폭 향상시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 '행복한 동행 새빛콜 여행스케치' 프로그램을 통해 신안 튤립축제를 방문하는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센터는 다인승 차량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 원장은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혁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길용현 기자

빛고을50+센터, 빛나는 인생학교 졸업식

광주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 빛고을50+센터(센터장 유영용)가 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빛나는 인생학교 심화반 1기' 졸업식을 가졌다.

심화반 과정은 빛고을50+센터 인생학교 6기까지 졸업자를 선발해 인생2막을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격상시킬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다. 매주 수요일 서울 인생학교 출신 강사를 초빙해 △50+의 멋, 인생학교의 의미 △음악으로 만나는 나와 우리 △삶에서 만나는 50+ 철학 △50+현장 활동을 위한 환경 살피기 △ 50+ 현장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탐구 및 계획 세우기 △함께하는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발표 및 나의 출사표 발표 △동심으로 돌아가기 소풍 등 야유회 등을 진행했다.

유영용 센터장은 "광주 장년층 시민이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도록 멘토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빛고을50+포털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농협 전남노조, 무안서 방울토마토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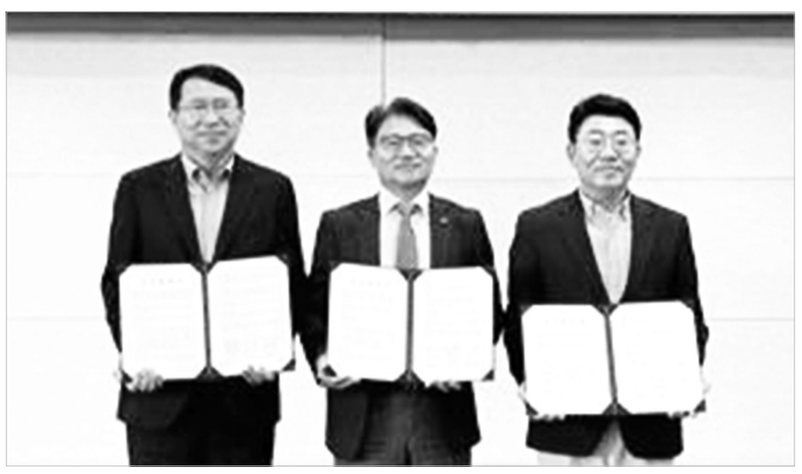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위원장 차상훈)는 4일 무안군 일로읍 일원에서 농협전남본부와 함께 방울토마토 따기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노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전남노조 분회장 및 조합원과 임직원 등 50여명이 함께했으며,아침 일찍 농가를 찾아 농장주에게 방울토마토 따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정성을 다해 방울토마토를 따며 구슬땀을 흘렸다.

차상훈 위원장은 "방울토마토는 3일에서 5일마다 수확을 해야 하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한 알 한 알 따야하기에 인력이 부족해 힘든 농가를 도울 수 있어 기쁨이 두 배가 됐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주는 "일손이 부족 했는데 이런 시기에 한걸음에 달려와 일손을 보태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연수 기자



도공 광주전남본부, 지역관광 활성화 맞손

전남관광재단 등과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4일 전남관광재단, 금호익스프레스와 '광주전남지역 관광활성화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게소 할인과 홍보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휴식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대상 휴게소는 춘향(순천), 함평나비(무안), 보성녹차(순천), 지리산(양방향), 섬진강(양방향) 등이다.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버스 래핑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호익스프레스는 두 기관의 정책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남도한바퀴 여름·가을상품과 버스한바퀴 상품 탑승고객은 목걸이형 탑승권을 커피·열린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와 간식을 구매할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휴게소에서 편하게 쉬어가길 바란다"며 "국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조선대 'K-MOOC 브런치 콘서트' 성료

조선대학교는 최근 교내 서석홀 4층에서 '2025 K-MOOC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가 운영 중인 우수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열린 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94명의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콘서트는 'K-디자인'과 'K-수어'를 주제로, 문화콘텐츠학부 박재연 교수의 'K-문화콘텐츠의 매력, With 디자인'과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의 '보이는 언어, 보이는 마음: 한국수어의 세계' 특강이 각각 진행됐다.

박재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해 K-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조명했고, 최영주 교수는 수어를 매개로 마음을 전하는 감성적 소통의 힘을 흥미롭게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브런치가 제공된 강연 현장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강연 후에는 행운권 추첨 등 부대행사도 더해져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조선대 관계자는 "K-MOOC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 플랫폼"이라며 "이번 브런치 콘서트가 대학과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